

## 카드업계 2위 삼국지

# 삼성 제친 KB... 현대도 턱밑 추격

올 1분기 점유율 2위는 국민카드  
삼성카드 점유 증가했지만 3위  
국민카드 마케팅 비용만 1.3조

수년째 혼전을 이어가고 있는 카드 업계 2위 쟁탈전에서 1분기에 KB국민카드가 삼성카드를 꺾고 올라섰다. '부동의 1위' 신한카드와의 격차는 여전히 있지만 2위를 차지하기 위한 혈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2분기 순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인·법인카드 신용판매 취급액 기준 올해 1분기 신용카드사 점유율 1위는 21.97%를 차지한 신한카드다. 이어 ▲KB국민카드 17.71% ▲삼성카드 17.67% ▲현대카드 16.28% ▲롯데카드 9.61% ▲우리카드 8.68% ▲하나카드 8.08% 순이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4분기보다 점유율을 0.28%포인트 늘리며 전업카



신한카드 사옥 전경

드사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삼성카드의 점유율 역시 0.14%포인트 증가했지만 0.04%포인트 차이로 순위를 내주고 말았다. 두 회사가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동안 현대카드 역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현대카드는 같은 기간 동안 0.04%포인트 늘리며 3위와의 격차를 1%대 중반으로 줄였다. 새롭게 2위에 올라선 KB국민카드와 아쉽게

자리를 내준 삼성카드. 뒤를 바짝 따라 붙은 현대카드까지 점유율을 높이는데 혈안이다.

점유율 2위 자리를 법인카드 실적에서 판가름 났다. KB국민카드는 전년 동기 대비 법인 실적에서 2600억원 가량 오른 반면 삼성카드는 동기간 오히려 3000억원 가량 하락했다.

KB국민카드의 마케팅비용은 업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KB국민카드는 마케팅비용에만 1조2836억원을 지출하며 전년도 대비 8.52% 늘었다. 업계에서 세번째로 많이 지출했다. 또 자동차 금융 등의 사업 다각화로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왔다.

4위 현대카드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특히 사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통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코스트코에 이어 대한항공, 스타벅스 등 업계 주요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하며 신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지난 29일 부평종합금융센터 WM복합점포 개점식에서 KB증권 WM총괄본부 이흥구 전무(왼쪽 두번째), KB국민은행 경인지역영업그룹 정희철 대표(다섯번째)가 임직원과 함께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KB금융그룹

## 은행·증권 한곳에서... 부평 WM복합점포 개점

KB금융그룹, 총 81개 복합점포망

KB금융그룹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종합금융센터 WM 복합점포'를 열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로써 KB금융그룹의 WM 복합점포는 72개로 늘었으며 CIB 복합점포 9개를 포함해 총 81개의 복합점포망을 구축했다.

이번에 개점한 복합점포는 부평구 내에선 처음으로 개설한 WM복합점포다. 이번 개설을 통해 인근 국가산업단지 내 입점 기업, 부평구 거주 고객들에게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WM 복합점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은행과 증권 업무를 같은 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의 모든 상품을 편리하게 접할 수 있어 고객별 니즈에 따른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또 은행과 증권 PB가 제공하는 부동산, 세무, 자산관리 등의 전문적인 상담을 '공동상담실'을 통해 한번에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WM 부문을 총괄하는 김영길 부문장은 "은행, 증권 WM복합점포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리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 대부업 대출잔액·이용자수 소폭 하락

대부업, 저축은행업종전환 영향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예정

지난해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저축은행으로 영업을 전환하며 대부업체의 대출잔액과 이용자수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올해 중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201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수는 8354개로 지난해 상반기(8294개)보다 증가했다.

반면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8000억

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형 대부업은 14조원에서 13조1000억원으로 대출잔액이 감소했다. 중·소형 대부업은 2조7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산와머니 등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중단과 주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으로의 영업전환,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대출심사 강화 등에 기인해 대부업체 대출잔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도 줄었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수는 177만 7000명으로 지난해 6월(200만 7000명)과 비교해 23만명 감소했다. 대부업 이용자가 200만명 이하로 떨어진 건 2010년 6월말 이후 9년여 만이다.

대부업 대출금리는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며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해 말 기준 평균 대출금리는 18.4%로 지난해 6월말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는 21.5% 전년 6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했지만, 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2.9%로 전년 6월 대비 0.9%포인트 줄었다.

그러나 금리인하 혜택은 주로 법인차주에게 돌아갔다. 개인차주와 법인차주간 금리를 비교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개인차주는 법인차주보다 평균 19.6%포인트 금리가 높았다.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말 연체율은 9.3%로 지난해 6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저신용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5@

## 신한카드 "카드로 월세 결제후 대금일에 납부"

My월세 프로세스, 국내 특허출원 중

신한카드가 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이(My)월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My월세 서비스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된 바 있다.

임대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기존에도 유사한 월세카드 납부 서비스들이 출시됐지만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혁신성을 바탕으로 한 My월세 프로세스를 국내 특허출원 중에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의 경우 임차인, 임대인 중 선

택해 부담할 수 있다. 수수료율은 1%로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했다.

또 임차인이 당장 현금이나 계좌잔고가 부족해도 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로써 카드 이용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대출이 아닌 신용한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이 없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카드는 금융당국의 혁신금융 추진 정책 취지에 맞춰 하반기에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까지 월세카드납부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의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 하나은행, 코로나 극복·상생 위한 노사 공동선언

사회적 약자 기부 공동기금 조성

하나은행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하나은행 노사는 사회적 약자 기부를 위한 노사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임금인상 소급분 중 1인당 5만원씩을 기부하면 은행도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부한다.

하나은행 노사는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



지성규 은행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최호걸 노조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이 노사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참석한 노사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은행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도 동참한다.

이번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하나은행은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일부를 은누리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노사는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국내외 금융환경 속에서 무엇보다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경쟁력 경쟁력 강화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나유리 기자

## 금융당국, 전수조사·조치명령권 발동 검토

>> 1면 '또 터졌다 사모펀드'서 계속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항상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지만 보험은 계약조건이 굉장히 복잡하다. 대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사는 없다고 보면 된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만 보장하는 등 까다로운 규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에 판매사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원금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

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펀드의 환매 연기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와 함께 조치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상 권한이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실태조사를 통해 의심스러운 지점을 발견했을 경우 자산동결이나 추가펀드 설정 제한 등에 조치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손범지 기자 sonumji301@